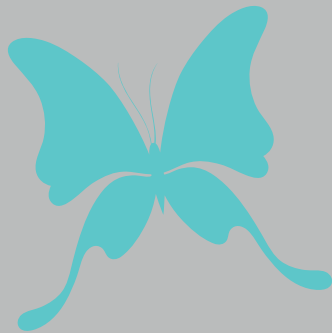


이주와 영화하기

섹알 마문 Shekh Al Mamun (영화감독)

이주의 경로 방글라데시에서 매니지먼트를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다.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같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전공 공부도 흥미롭지 않아서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그저 많은 젊은이들처럼 방글라데시와 가족에서 벗어나 외국에 나가고 싶었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1998년 한국에 처음 오게 되었고 그때 20대 초반이었다. 공장에서 그렇게 힘든 노동을 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마석가구단지 2011년까지 마석가구단지에서 10년 가까이 있었다. 당시 미등록노동자였는데 퇴직금을 못 받고 있으니 주변에서 노조와 연결시켜주었다. 노조에서 만난 한국인들과 친구가 되면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한국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 대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추방이 시작되었다. 2003년 서울 명동 성당과 성공회 대성당에서 이주노동자 수백 명이 모여 시위를 할 때 농성장을 지켰다. 이 때 현장에서 만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였다. 이후 한국인으로 국적이 바뀌자 정작 이주노조에 가입이 안됐다. 그래도 주변의 이주 노동자들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을 계속 했다. 가구공장 일을 계속 했고 숙련노동자로서 조금만 더 일하면 한국인 사장에게서 독립해서 가구 공장을 차릴 수



도 있었다. 주변에 후배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자고 하더라. 숙련 공으로서 월급도 꽤 됐고 별 문제 없이 지냈다. 그런데 공무원 준비를 하던 와이프가 몇 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는데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 노조 활동을 하며 와이프를 만났는데 이제 생계는 본인이 책임질 수 있으니 나보고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하라고 하더라. 월급보다 와이프가 더 중요했다. 그 날로 공장을 그만두었다.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이하 AMC) AMC의 사무실을 새로 꾸미는데 인테리어를 도와달라는 연락이 왔다. 마침 공장을 그만둔 직후였다. 월급은 못 주지만 밥은 사줄 수 있다고 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AMC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주노조에서의 투쟁 경험은 있었지만 예술 활동 경험은 없었다. 영화감독으로 살겠다는 생각은 더더구나 없었는데 우연히 영화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의 일과 영화 일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구공장에서 조각들을 조립하여 가구를 만들 듯 필름 조각들 아니 장면들을 이어 붙이는 영화 일이 비슷했다. 그리고 둘 다 조각들을 이어 붙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작의 과정이다. 영화를 통해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주노조 활동과도 다르지 않았다. 가구공단의 숙련공, 이주노조의 활동가, 그리고 영화감독으로서의 각각의 일이 모두 내게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화 작업에 대해 내 영화의 첫 관객으로 50명이 왔고 관객과의 대화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됐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로 타인에게 이주에 관해 얘기할 수 있게 되어 좋았다. 대개는 이주노동자로서 예술을 하는 게 쉽지 않다. 개인 생활 시간이 거의 없다. 결혼이주민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

모라면 더군다나 활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세들 중에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할 텐데 이것도 쉽지 않다. 영화를 하려면 계속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하루 중에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예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배가 불러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고 한국 국적이 되면서 다른 이주민과 상황이 좀 달라지기는 했다. 한국 국적이니 비자 걱정 없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영화 지원금 신청도 할 수 있다. 아내가 생계를 책임진다고 하면서 시간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고 생계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되었다. 아직도 친한 이주노동자 친구들 중에는 안산에서 여행사나 가게를 하자는 얘기도 한다. 그러나 내가 돈을 버는 일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면 작품 활동을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 AMC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정소희 감독과 비교해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정소희 감독이 나보다 먼저 영화를 시작했지만 작품 수만 보면 내가 더 많은 작품을 할 수 있었다. 정소희 감독은 작품 외에도 다른 일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제작비 지원을 여러 번 받았다. 편집과 촬영은 직접 하는 편이고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AMC에서 활동 기반을 갖고 있으니 이 인프라의 활용이 많은 도움이 된다. 한국 스크립트와 영어 자막의 감수와 제작 그리고 영화제작비 지원 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업 등 언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주위 지인들이 많이 도와준다.

물론 나와 연대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풀이 한계가 좀 있긴

하다. 방글라데시에서 2019년에 <기다림>으로 상을 받았는데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영화제에 참석하지 못했다. 2020년에도 상을 받았지만 직접 가서 받지 못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영화계에서 내 이름은 알아도 나를 직접 본 사람이 거의 없어서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방글라데시 영화계에서는 작품은 알아주지만 내가 거기서 물리적으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어떤 인맥이 쌓인다고 볼 수 없다. 한국 내에서는 내가 외국인이니까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등의 주제로 다큐멘터리 작업만 한 감독으로 아는 것 같다. 극영화가 더 훌륭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다. 현재 다음 극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나리오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최종 지원심사 대상이었다. 최종 선택은 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더 큰 지원을 받게 되었다. 이제 경력이 많이 쌓이다보니 이번 영화에서는 스스로 기대가 많다. 하고 싶은 내용을 잘 표현하고 싶다. 이주민이 만든 영화는 누가 따로 평가해야 할까?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해야 할까? 언젠가는 한국 영화계에서도 외국인이라고 따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작품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좀 구분되는 것 같다. 평가는 내 영화를 봐주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비판은 당사자를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평가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술가 혹은 운동가라면 그 평가에 대해 고민하고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고민하게 만들어 준다. 이런 평가를 받아들이 못하는 사람이라면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들이 내 영화에 대해 평가해주는 건 고마운 일이다. 평가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다음 작품을 할 때 생각할 거리가 분명 있

을 것이다.

예술과 운동 Art and Activism 예술은 대단하면서도 단순하다. 단지 어떤 실질적인 고민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주에 관해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건 그저 누군가 먼저 하기 전에 내가 나의 실질적인 고민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 것일 뿐이다. 한국으로의 이주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혹은 생각하는 건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것이고, 어쩌다보니 나의 표현방식이 이렇게 영화로 나타난 것이다. 이게 예술인지 운동인지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서로 인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다. 이주 운동도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예술을 통해 운동을 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정도만 다를 뿐이다. 비율로 말하자면 영화를 통해 운동과 생계를 유지하는 게 나에게 60:40의 비율 정도인 것 같다. 60의 비율로 운동을, 40의 비율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을 통해 운동을 하는 것이긴 한데 생계유지도 모두 중요하다.

한국에서 이주민의 재현 방식 영화보다 방송을 접하다보면 아무래도 방송에서는 재현되는 이주민보다는 한국인 피디의 시점과 목소리가 중요하다. 나는 이주자의 경험을 통해 내가 직접 표현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한국 방송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많이 보여주는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전 세계적 어디든 일정 정도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마치 아시아계 다문화 가정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가정 문제로만 많이 그려진다. 이주민의 비자 문제도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차별적이지만 방송 촬영을 위해 이주민의 가족들을 방송에 담아야 하니까 비자 발급이 쉽게 된다. 방송을 위한

현실이 실제 이주민들의 현실 문제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다문화 축제도 대표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덮어버리는 행사다. 2004년 한국에서는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단속이 심했다. 많은 이들이 단속을 피하려다 다치고 위협했다. 그런데 아리랑 축제가 2005년도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 주변에서 돈 때문에 축제의 공연에 참여하는 이주민들이 있었다. 그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이주공동체들이 다 같이 어울리기보다는 국가별로 각자 어울린다. 나도 초청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가보면 어떤 축제는 “행사를 위한 행사”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여러 지원 사업은 지속되어야겠지만 행사를 위한 행사로서의 축제들은 문제가 많다. 개인적으로 이제 축제행사나 문화다양성 위원회 등 형식적인 모임에는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볼수록 뭔가 후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세 가지 이미지 나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세 가지 순간들 혹은 의미들을 세 가지 사진으로 추려 보았다.



내일을 위해

2018년 충북 새벽에 말농장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연출한 사진이다. 영화 <노 웨이 아웃 No Way Out> 촬영 당시 찍었던 스틸 사진이다. 제목과 달리 더 나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한국에 본격적으로 이주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면이 많다. 하지만 더딜지라도 변화는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다. 이주민과 선주민의 차이가 그저 개개인의 차이로 받아들여질 그 날을 고대하며 그러한 내일을 위해.



지나간 우리의 이십년

2023년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한 행사 날은 마침 명동농성 20주년 기념행사도 함께 했다. 그 기념행사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업장 변경의 자유!! Free Job Change”라는 이 말을 좋아한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했다. 사업장 변경만 되더라도 지금의 임금 체불 문제, 기숙사 문제 등의 상당수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고

용허가제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인 사업장 변경의 자유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없다. 달라지는 건 없었고 오히려 최근 ‘지역 제한’이라는 규정까지 등장하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견뎌온 지난 20년의 시간은 그저 헛된 시간이었을까. 그렇지 않기를. 이주노동자들에게는 너무도 절실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쟁취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누가 나에게 침묵하라고 했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민 중 대다수는 이주노동자이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이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 비자연장, 재계

약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을 사업주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소조항 때문에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누가 그들을 침묵하게 했을까? 마치 내 주위의 세상이 거꾸로 되어 있는 듯하다.

*이 글은 본 저서의 주제인 아티비즘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대표적으로 아티비즘을 실현하고 있는 인물로서 섹 알 마문 감독을 2024년 7월 인터뷰하여 녹취 정리한 후 본인의 검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